‘특화 · 마케팅’ 으로 템플스테이 활성화를

박태원 대표, 한국불교학 82집서 논문 발표

철학 · 가치 담은 브랜딩 만들고
숲 · 음식 등 특화프로그램 개발
외국인 참여 관리체계 도입해야
지역 연계한 관광 · 지원책 필요

한국의 대표 문화관광콘텐츠인 템플스테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특성화된 프로그램 및 철학과 가치를 담은 브랜딩, 지역과 연계한 관광과 지원 체계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태원 한국물류포럼 대표는 한국불교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불교학〉제82호에 발표한 ‘우리나라 템플스테이 활성화 방안’ 에서 현재 템플스테이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분석 · 제안했다.

현재 템플스테이 현황에 박 대표는 “템플스테이가 가지고 있는 문화 · 사회적 기대효과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국내 · 외 참가자의 증가세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박 대표에 따르면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은 증가세에 있지만 2013년 이후 증가세는 9% 선에서 머물고 있다. 이는 2004~2015년 연평균 증가율 19.7%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내국인 참가자 86.8%로 비중이 높았으며, 상위 20개 사찰이 전체 참가자 수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프로그램 역시 62.8%가 불교수행 문화, 사찰 생활 체험으로만 구성돼 “사찰별 특성이 반영된 특화 프로그램 비중이 낮다”고 박 대표는 분석됐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템플스테이 활성화 방안으로 △템플스테이 브랜딩 △사찰림 · 사찰음식 등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지역 특화 관광자원 활용 · 연계 △외국인 참여 확대 위한 관리 체계 마련 △자유학기제 연계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시장 중심형 마케팅 전략 추진 △템플스테이 전문 인력 양성을 제시했다.

템플스테이 브랜딩에 대해 박 대표는 “템플스테이 기획은 프로그램이라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어떤 가치를 전달할 것인가에 맞춰 브랜드 관점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사찰과 차별화되는 이미지와 콘텐츠를 구축하는 시장 중심형 템플스테이, 브랜드 템플스테이 성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성화 프로그램의 예로는 사찰림을 활용한 숲 체험과 사찰음식 연계 프로그램을 들었다. 특히 박 대표는 사찰음식에 대한 선행 연구를 제시하며, “사찰음식의 관여도가 템플스테이 체험 만족과 재방문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했다”면서 “일선 운영 사찰들이 사찰음식을 템플스테이 프로그램과 연계해 개발함으로서 템플스테이를 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시장을 세분화해 표적 시장을 확인하고 구별할 것과 재방문율이 낮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 등을 제안했다. 그는 “한번 템플스테이를 경험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SNS 상의 소통과 관련 운영을 하거나 새로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기적 소식 전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 자원 연계 · 개발을 비롯해 지자체들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박 대표의 제언이다.

시장 마케팅 전략에 대해 박 대표는 “템플스테이가 수요자 중심의 운영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템플스테이 제공 가치를 관광 · 정신건강 · 교육 · 복지 · 소통 가치로 구분해 목표 시장과 추구 편익 등의 전략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 신행 혁신운동을 고찰하다

불광연구원 ‘전법학연구’ 12호 발간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이 불교 신행 혁신운동을 통시적 관점서 고찰한 기획논문들이 담긴 〈전법학연구〉 12호 〈사진〉를 발간했다.

지난 7월 30일자로 발간된 12호는 4개 주제 총 16편의 논문으로 구성됐다. 기획논문으로 ‘불교신행 혁신운동의 이념과 역사’를 통시적으로 조명한 논문 4편과 논평 2편, ‘아시아 재가불교와 불교의 미래’를 주제로 인도, 중국, 일본, 대만, 한국의 5개국 학자가 발표한 논문 6편이 게재됐다.

기획논문 첫 주제인 ‘불교신행 혁신운동의 이념과 역사’는 불교사의 변곡점마다 나타난 신행혁신 운동의 이념과 역사를 통해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할 지혜를 모색하고 있다. 두 번째 주제인 ‘아시아 재가불교와 불교의 미래’는 인도, 중국, 일본, 대만, 한국의 재가불교 현황을 살펴보고, 불교발전을 위해 재가불자의 바람직한 위상과 역할을 모색함으로써 아시아불교의 현황과 미래를 다뤘다.

또한 광덕 스님과 함께 불광운동의 초석을 다졌던 흥교 스님과 송석구 前 불광법회장의 인터뷰도 눈길을 끈다. 특히, 광덕 스님의 전법행과 불광운동의 시대정신을 엿볼 수 있는 최초 증언이라는 데 이번 인터뷰는 의미가 크다.

동산 대종사의 제자로 오랫동안 광덕 스님을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전 범어사 주지 흥교 스님은 광덕 스님에 대해 “한국불교의 물줄기를 돌려놓은 선지식”이라고 평가했다. 흥교 스님은 인터뷰를 통해 성철 스님이 해인사 주지를 권했지만 대중교화를 위해 도심 포교에 전념한 일화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불광법회 법회장을 지내면서 불광운동의 한 축으로 활동했던 송석구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은 “광덕 스님의 불광운동은 순수불교 운동”이라고 회고했다. 송 이사장은 광덕 스님의 순수불교는 불교의 기복적 요소를 일소하고 불교의 본래 모습을 지향했다고 회고했다. 그리고 순수불교의 핵심은 “인간은 누구나 평등한 불성을 가지고 있는 동일체”임을 자각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근현대 아시아 불교국가들이 각국의 역사적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불교전통을 복원하고 부흥시켰는지 짚어본 ‘전법리뷰’도 게재됐다.

신성민 기자

한국 불복장 의례 고유성을 논하다

동국대 · 이대, 11~12일 세미나

한국의 불복장 전통과 의례의 고유성을 알리는 국제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동국대불교문화연구원(원장 김종욱)과 이화여대박물관(관장 장남원)은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화여대 박물관 강의홀서 ‘불복장’을 주제로 국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의 국제인문학 프로젝트인 ‘불교와 동아시아 종교’와 협력해 이뤄지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제임스 롭슨 하버드대 교수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되며, 리처드 맥브리드 하와이 브링햄영대 교수 · 정우택 동국대 교수 · 홍지희 맥길대 교수 등이 좌장으로 참여해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주제 발표에는 한국 불상의 복장 의례에 대한 쟁점과 과제부터 시대별 복장물에 대한 이해, 불화 복장물 등 한국과 해외학자들의 다양한 연구 논문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한국불교의 불복장 전통과 의례의 고유성을 해외에 알리고, 해외학자들과의 교류의 장을 마련코자 한다”면서 “동아시아 불복장에 관심있는 학자와 학생들의 많은 참가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고려 교장 조사 · 연구, 새 장 열겠다”

고려대장경硏 · 미노부산大 7월 31일 학술교류협약

문헌 조사 · DB 구축에 목적 “불교서지학 초석 놓는 사업”



고려대장경연구소와 일본 미노부산대학은 7월 31일 중앙신도회관 3층 회의실서 고려 교장문헌의 조사와 연구, 학술교류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명 ‘팔만대장경의 주석서’로 잘 알려진 고려 교장 문헌을 조사 · 연구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고려대장경연구소와 일본 미노부산대학은 7월 31일 중앙신도회관 3층 회의실서 고려 교장문헌의 조사와 연구, 학술교류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림 스님, 모치즈키 카이에 미노부산대학연구소 연구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 협약은 고려대장경연구소가 추진하는 ‘동아시아 고려교장문헌 조사 및 DB구축사업(교장프로젝트Ⅱ)’의 시작을 알린 것으로, 2020년 2월까지 3년간 추진된다.

앞서 연구소는 지난 5년 동안 ‘디지털 대장경’을 기치로 ‘초조대장경’과 ‘고려교장’ 그리고 ‘재조대장경(팔만대장경)’으로 이어지는 고려대장경의 계보를 되찾고자 ‘고려교장 결집 및 DB구축사업’을 실시했다. 그간 ‘고려교장’은 고문헌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教藏總錄)’을 통해서만 전해졌는데, 여기에 수록된 장소(章疏) 문헌을 일본과 중국, 국내 등지에서 찾아 조사하고 DB화 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려대장경연구소는 미노부산대학 및 구원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려 교장 문헌을 조사 · 연구하게 된다. 또한 이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림 스님은 “교장문헌을 모아서 연구하면 당시 불교학의 판도를 읽을 수 있다. 세계 최초의 주석서이니 정리해두면 동북아 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토대 자료가 될 것”이라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한국에는 복각본 뿐 판본은 존재하지 않는데 미노부산대학에는 판본이 존재한다. 판본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치즈키 카이에 연구소장은 “미노부산대학은 구원사가 설립한 종립학교다. 구원사와 미노부산대학에 있는 자료를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학자들이 연구해 준다니 감사하다”며 “양국 학자들이 모여 연구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더불어 향후 세계 여러 학자들과 함께 연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좋은 과정과 결과를 만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 박진형 수습기자

심화과정 신설된 ‘한문아카데미’ 오세요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문아카데미 연수생 모집

한문불전 역경 인재 양성과 불교학 연구자들의 한문 해독 능력 배양을 위한 ‘한문아카데미’가 문을 연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석)은 “한문아카데미 2학기 연수생을 8월 14일부터 8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8월 1일 밝혔다. 이번학기부터 기존의 과정보다 전문화된 심화과정도 신설된다.

기본과정 선발연수생 정원은 30명이며 4년제 대학 재학생 이상 학력이면 지원 가능하다. 심화과정 선발연수생의 정원은 10명이며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이면 지원 가능하고 필기고사 전형이 있다.

연수 희망자는 홈페이지 입학안내에서 입학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자기소개서, 대학(원) 재학증명서 혹은 최종학력 증명서와 함께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일반연수생은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서를 다운받아 접수해야 한다.

기본과정 선발연수생(정규과정, 수료증 발급)의 경우 학기당 16주(3~6월, 9~12월) 강의를 총 4학기 수강하며 30학점을 이수하면 수료하게 된다. 일반연수생은 학기별로 과목당 신청 가능하다.

과목은 △유식30송(월, 묘주 스님) △원전으로 본 불교교리(화, 현진 스님) △장자(수, 이형성) △유마경(목, 정운 스님) △맹자(금, 한재훈) 강의가 실시된다. 강좌는 오후 6시30분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된다.

심화과정의 경우 별도로 일반연수생을 모집하지 않고 10여명의 선발연수생만 모집하며 기본과정과 동일하게 4학기동안 30학점을 이수하면 수료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번 학기는 △현우경(월, 성재헌) △조론(수, 박해당) △선문염송(금, 박해당) 강의가 진행된다.

문의 (02)6713-5154

신성민 기자

제97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9월 7일 오후 5시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 ~ 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